

가정예배 안내서

6

1994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예레미야

기 도 제 목

1. 기도가운데 불같이 일어나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4년 6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예레미야서 서론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한 때였다. 당시 신흥 바벨론은 메대와 연합하여 앗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켰고(B.C 612년), B.C 610년에는 하란을 탈취하여 앗수르 왕국을 붕괴시켰다. 바벨론은 B.C 588년에 유다를 침략하여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를 장악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 그가 소명받은 때부터 B.C 580년경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0여년간 예언활동을 했다.

예레미야서의 첫부분(1-39장)은 유다왕국의 백성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40-52장)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인해 실의 속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들 중에는 유다 산간지방에 숨어 있던 자들(40-43장)과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44장)이 포함된다.

예레미야서의 핵심구절은 2:14-17과 4:23-28이고 주요 낱말은 '심판'이며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사랑의 영원성'이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레미야는 먼저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는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 '의로운 가지'와 '새로운 가지', '새로운 언약'을 알렸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승리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1

(수) 예레미야의 소명

찬송 / 354장 본문 / 렘 1:1-19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1:5)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는 모습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 첫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신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대로 부르셨다는 뜻이며 이는 곧 하나님 자신의 뜻이 소명의 근거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응답하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양의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청중을 선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면 어디나 가서 누구를 막론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곧 증인의 생활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기도 /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전의식이 있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2:13)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늘을 향해 놀라고 두려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시는 여호와를 버린 것이요, 다른 하나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보상도, 유익도 줄 수 없는 우상들을 신으로 섬김으로써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그리고 우상들을 깨지거나 터져버린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에 비유합니다. 웅덩이는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나 샘물은 한결같이 솟아나고 사철 내내 흘러 넘치는 곳이어서 그 물은 활력을 더해주고 더욱 좋은 물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시요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을 버리고 우상들을 좇아 무익한 것을 구하고 있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죄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생수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할 때 오늘날도 우리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요 4:14)고 말씀하십니다.

▶ 기도 / 생수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생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감창인 원로 목사님께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모든 사역에 끝날까지 함께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5:8)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과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향한 칭호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예’와 ‘이제’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신분을 분명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어두움의 자녀였습니다. 죄가 죄인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이는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면에서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충만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요15:8). 오늘도 우리의 삶속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빛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목회 비전들이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옵소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2:19)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선택받아 혜택을 누리는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았습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갖 음행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한 포도나무로 만드셨으나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가지를 내었으며 들포도 같은 쓸데 없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더럽지 아니하다고 스스로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귀한 나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이방민족과의 접붙임을 통해서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고통의 징계를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한 나무에 세상의 악한 가지를 접붙이지는 않았습니까? 더러운 가지들을 제거하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솔직히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용서함 받는 참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9:19)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찬송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악인 때문에 수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의 찬송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조리가 성행하고 악한 자가 승리하는 실망적인 일이 있어서 낙심할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험을 치를 때에 나타납니다. 실력이 충분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뻐하지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과를 생각하며 항상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며 심판을 기다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벌받을 것을 생각하므로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교만했던 자들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찾는 자들마다 악인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곤고함을 돌아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의 득세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을 버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능력 있는 추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2:37)

본문에서는 형통하지 못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녹이 생긴 물건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을 닦아내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해야 합니다. 녹을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그 모습도 좋지 못하거니와 계속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형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한 후에 새로운 삶으로 덧입혀야 합니다.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죄로 더러워진 모습을 간직한 상태에서는 형통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통하지 못한 이유들을 제거해야만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의 대표도 타락했고, 민족의 대표도 타락했고, 종교의 대표도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한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들로 인하여 형통을 누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형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명을 같이하면서 형통을 구했습니다. 근본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백성과 명을 같이 하는 순간에는 형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믿지 않는 자들과 명을 같이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3:10)

율법에는 만약 그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것이 발견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어 그의 아내를 내어 보내고 다시는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참조, 신 24:1-4).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가 가능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민족의 죄가 더욱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더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애호자라고 고백하면서 악을 행하고 욕심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행위로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짓밟는 위선된 종교인의 태도입니다.

이 민족의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죄악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삶으로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의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직원들이 환경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을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3:14)

본문은 ‘배역한 이스라엘’이 ‘패역한 유다’보다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유다가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특권과 은혜를 입었으며, 책망과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한 남편으로서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목자를 세워 주실 것이며, 이들은 유다와 더불어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 땅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악 중에 허덕이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분열되고 다투며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되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은 분명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성도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의 사랑으로 대화합을 이루어 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나’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힘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4:4)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돌아가야 할 인간들이 돌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요동치 말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굽은 베를 두르고 애곡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징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과 산업을 위하여 애곡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다가 그들의 생명과 산업이 징계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버려야 할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참조, 롬 1:29-31). 이러한 심령은 황폐한 사막과 같이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황폐한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업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삶 또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10:2)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구원의 천국 복음’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천대 받던 이방인인 로마사람에게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복음은 장벽이 없습니다.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 넘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라도 전파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복 국가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병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7).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한 시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3).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국복음이 민족의 장벽을 뛰어 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구원받는 축복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 속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닮아가기를 애쓰며 힘쓰는 조직이 되게 하소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4:19)

본문의 말씀은 자주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 언급되어지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 깊은 곳의 슬픔을 엿보게 합니다. 4장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통렬히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1), 여호와와 이름으로 참된 맹세를 하며(2), 더러워진 성품과 행실을 회개하는(3,4)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의의 길을 자세히 지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환상(23-26)을 통하여 도래하는 심판을 두려움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결코 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신탁이 주어집니다(27,28)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인들의 완악한 심령 때문에 그토록 깊은 영적 고뇌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그는 22절에서 자기 백성을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라고 통렬히 공박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예루살렘의 회개를 촉구하며 우셨던 주님의 모습과(눅13:34)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민족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 뜨거운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신앙 세계에 있어서 조차 개인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는 이웃의 죄악을 짚어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필요합니다.

▶ 기도 / 하나님 이 민족의 상함과 아픔을 고치시고 치료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힘을 주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10:15)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치 않은 악한 무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로부터 모진 핍박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탄식하면서 악인의 교만과 죄악상을 열거한 후 하나님께서 악인의 교만을 꺾고 성도를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12).

악인은 왜 여러 가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의 교만과 불경건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13). 악인은 단순히 성도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15). 여기서 ‘악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샤 외라’는 ‘사악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의 악한 성품을 반복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팔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곧 악인들의 세력을 파괴하여서 무력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와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열방은 주의 땅에서 멸망 당합니다(16).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연약할 때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¹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5:1)

본문은 유다 왕조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다 민족의 사회의식, 하나님의 의를 경멸하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여 진실성과 회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종교의 풍조, 진리의 법도가 묵살되는 사회의 타락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유다는 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야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유다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게는 나라의 흥망성쇠, 작게는 개인과 가정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마음과 신앙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 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요건보다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부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명심하고 기도에 힘씁시다.

▶ 기도 /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들이 당신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녀전도회가 성령충만하여 본래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5:14)

본문은 선지자의 권고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로 치닫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그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유다 백성들 중 사회적인 비리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행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아의 송사를 부당하게 판결하고, 또 선지자들은 거짓예언을 했고, 제사장들도 거짓예언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몇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모든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극도의 인본주의와 죄성 때문에 여지없이 파괴된 환경과 불건전한 죄악의 상태에까지 내려감을 보여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결과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로 종결되는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무서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의 이익과 나의 안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경계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실수나 죄악이 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다.

▶ 기도 / 하나님, 날마다 우리 민족이 죄악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사랑부와 에버다부원들에 더욱 크고 깊으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6:6)

예레미야는 자신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자손들을 향하여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역사상으로 이루어진 바벨론 침공의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는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유린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당하는 고난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잘못된 선지자들까지 포함해 심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죄는 철저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욕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 모든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진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면서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실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바벨론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접하면서 진실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실을 무시하고 살 때 우리는 중국에는 거짓된 삶에 투자한 값을 치루게 될 날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공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말씀에 경건히 깨어 있어야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산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된 상황속에서 유동적으로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있는 말씀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시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선교위원회를 통한 기도와 물질이 부족함이 없이 선교지에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6:28)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북방에 있는 한 민족에 의해 무참하게 패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정복하게 될 나라는 바벨론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잔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들의 침략으로 유다 백성들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으며 두려움과 슬픔으로 통곡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이며 불순종한 열매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것이며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하므로 더욱 불신앙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배역하는 부패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국은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유다 백성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받은 형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사울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육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며 변하여 모슬렘을 변화시킬 한 영혼이 준비되게 하소서.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8:8)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오늘날 중대장 정도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으며 그 나라의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용맹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군인들을 지휘하고 있던 백부장의 모습은 상당히 무섭고 무자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본문에 나온 백부장의 모습은 자신의 하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부드러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하인이 중풍병을 앓고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이성에만 머무르는 자유주의적인 태도도 아니며, 이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며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 그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으로 물질의 풍부함과 삶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너는 여호와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7:2)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거짓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전에서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었으나 실제로는 탈취하고 노략한 물건들을 은닉하는 장소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정당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얻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불의한 방법을 통하여 얻은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백성들이 바쳤던 것입니다. 또한 온갖 거짓말을 하며 도적질을 하고 살인과 음란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다니면서도 주의 전에 나와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크게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기도하여도 듣지도 않겠고 대답지도 않겠으며 내 앞에서 쫓아 내어 버리겠다'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도 주의 전을 찾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온갖 불의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여 회개를 거절하고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지 살펴 보면서 진정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카이로 한국종합 선교관 건립을 위한 계획과 준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11:7)

본문은 다윗이 어려움 중에 항상 하나님께 피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실제 생활에서 비롯된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뿐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노력이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 만들어 낸 피난처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 그 위협을 막아 줄 능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분”(5절)이시므로 의인을 보호해 주시며 악인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더 나아가 그 악인에게 징계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의로운 일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7절). 그러므로 의로운 일을 행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시며 무한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만 피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참 구원의 도를 깨닫도록 인도하소서.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7:23)

본문은 마음과 생활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유다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백성을 어떤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까?

먼저 이들은 온 가족이 다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18절) 부모세대 뿐 아니라 자녀세대에까지 오염되어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암울할 뿐입니다. 또한 가족적인 죄악에서 더 나아가 사회전체가 부패하였습니다. 31절은 이미 불법적인 우상숭배가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함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악을 그냥 두시지 못합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당하였고,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만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우위에 두지 않게 하소서. 안식절 선교사(수리남)의 안식년을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충전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소서.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쩔이뇨 ……』(8:5)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징벌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처음에는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강박한 인간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징계의 채찍으로 내리치십니다.

1-3절에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징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며, 그들의 뼈가 우상신들 앞에 보란듯이 남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에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간절함을 거부하고 거짓을 고집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백성들(5절)에 대한 무서운 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뉘우칠 기회를 주었으나 뉘우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심지어 가장 모범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하였습니다(10절).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한 사람이며,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즉시 깨닫고 뉘우친 사람입니다. 성경에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완전한 사람이기보다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경건치 못한 습관에서 돌아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여 잘못을 행했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소서. 김은테 선교사의 사역을 통하여 조선족에게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수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헌신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₂(9:1)

이가봇! 사무엘이 어릴 때 한 여인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삼상 4:2). 범죄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패는 빼앗겼고 엘라의 두 아들도 전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적국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법패를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팽팽하게 당겨 화살의 먹인 활시위처럼 사람들의 입은 늘 거짓말로 장전되어 있어 입만 열면 속이는 사기와 중상모략이 튀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점점 더 죄짓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가득찬 세상을 살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수(報酬)를 외치면서 동시에 그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또 울고, 너무 울어 눈물이 메달라 버린 눈이 실로암 샘처럼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 되었으면 좋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백성의 범죄, 내 사회의 부도덕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을 대신하여 우는 예레미야가 될 수도 있고,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며 성곽 동편 언덕에 올라 '두고 보자' 그 성의 멸망을 즐기는 요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서울 장안의 범죄와 불신앙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내 백성의 범죄를 인해 울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도 /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형제와 이웃에게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김창수 목사(수리남)의 현지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 갈수록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뢰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 자랑치 말라 ……』 (9:23,24)

세상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며 그것을 힘으로 알고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어두운 세계에 살면서 남에게 내어놓으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면서 그 일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가 자신의 힘들을 자랑하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 때 아주 망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자비와 공의와 정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심판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힘을 정의로 알고 힘으로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는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아무리 물질이 풍요롭게 넘친다 하더라도 망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아니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힘으로 알고 살아갑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돈을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완력을 자랑하는 세상 앞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은 내 재산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 (11:40)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큰 우환이 왔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형제 나사로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라 아무리 울어도 해결책이 없고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11장 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들 가운데는 마리아가 곡하려갈 때 무덤까지 따라가서 함께 울어줄 사람은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병,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 삼키도록 그래서 우리가 울다가 지쳐 쓰러지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사로의 가정처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 기도 /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기성·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키시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10:2)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세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의 열방들이 가는 길은 '하늘의 창조'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넷째날 창조하신 해, 달,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알지 못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무서워하는 우상숭배 죄악에 빠졌습니다. 해, 달, 별들의 변화를 가지고 인생을 점치고 예언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또 열방들이 빠진 잘못은 나무로 무슨 조각을 하여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실상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무나 쇠붙이로 요란한 장식을 해서 만든 우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방의 길과 풍속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길은 성경을 열심히 알고 믿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행 20:32)고 하셨으니 말씀충만의 길로 달려가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섭취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십시오.

▶ 기도 /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는 지혜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 김형선·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이 이땅에 오는 가정들은 물론 현지인들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12:3,6)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세상은 거짓말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맨처음 인간을 범죄케 한 방법이었고, 지금도 범죄의 첫번 가는 수단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우리에게도 거짓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철두철미 그 죄악을 끊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은 아침하는 세상입니다. 아침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며 이용해 먹는 무서운 칼과 같습니다. 아침과 배신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아침이 있다면 단연코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짓과 아침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고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같이”(시 12:6)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또 ‘행동’에 있어서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 받지 말라”(마 23:3)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중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박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에 진실합니까? 돈 문제에 진실합니까?

▶ 기도 / 주님 거짓된 언행심사를 회개합니다. 진실을 먹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의 사역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자살과 음란에 빠지는 일본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그 땅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10:23)

성경은 계속해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주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셨다”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13-14절에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셨으니, 과연 인생의 길을 사람 마음대로 정한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시날 평원에서 있었던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와같이 인생의 길이 세계적인 일이건 개인적인 일이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 하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했지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분께 온전히 의탁해야 하겠습니다. 그 분께서 나를 주장하사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해 바라기처럼 주바라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영광의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을 뺀 채 세우며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곧 중단하시고 하나님과 의논하며 진행하십시오.

▶ 기도 /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사역 가운데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기름부으심이 넘쳐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11:4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대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말씀을 좇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3절).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던 때에 하신 언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고(4절), 둘째는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5절 상).

예레미야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아멘 여호와여”(5절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언약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좇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언약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고 시대에 뒤진 것이라 생각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언약에 대한 기억을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소서. 복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옵시고, 그 땅의 배고픈 형제들에게 필요한 식물과 물질들이 복음과 함께 전달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11:20)

예레미야는 그의 생명의 위험 중에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이때 아나돗 사람들은 선지자를 죽이려 했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었습니다(18절).

이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험에서 피할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곤경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전지시키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20절에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미움과 질투로 점철된 인생은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사랑으로 일관된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외모로 하기 쉬우나 하나님은 못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사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 알리시며, 공의로우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공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 주는 의로우시니이다』(12:1)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활동하는데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비난, 핍박,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심하여 여호와께 쟁변하며 질문했습니다(1-2절). 이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 뜻은 네가 그만한 것으로 상심하느냐? 보행자와 경주하여 벌써 피곤하면 앞으로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만 지날 것이 아니라 넘치는 요단강도 있다. 앞으로 더 큰 시련, 큰 위기가 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고 분발하라'는 숨은 질책과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5-6절).

예레미야의 신앙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비행을 보면서 자랐고, 직장에서는 선임자의 비리를 보면서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인들 별 수 있으랴 하는 체념으로 별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일이나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지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의롭지만 인생은 문제가 많음을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문제에 대해서도 더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실존과 그의 전적인 선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사려깊은 신앙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 기도 /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리는 7월 한 달 동안도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살게 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기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22 과

빛의 자녀

· 성경본문 : 엡 5:1-14

· 중심요절 :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엡 5:8)

· 찬 송 : 429장, 446장

1. 서 론

우리들은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새 생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어둡고 소망없는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시금 죄 가운데 끌려 들어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감사에 넘치고 은혜에 넘친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본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로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매여 있을 때에 에베소교회를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하였고 거대한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시에 에베소에서 근 3년간 머물면서 전도하였고 이때 에베소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에 일곱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였던 곳입니다. 에베소서는 편지글이지만 이 편지를 받아 볼 사람들은 꼭 에베소교회만이 아니라 소 아

시아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돌려 가면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에베소서에 에베소교회의 특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가르치고 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독교의 진리와 교회의 생활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다루고 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기독교인의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보아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3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4장 5장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6장에서는 성도의 영적싸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새 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17-24),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5:1-21)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2)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2절)

3)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왜 버려야 합니까?(3,4,5절)

4)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옛 생활 그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6절)

5) 너희가 전에는 ()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이라. ()의 자녀들 처럼 행하라 (8절). () 속을 채운 다음 다 함께 외웁시다.

6)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9절)

7) 어두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11절)

4. 삶의 적용

1) 우리들이 물리쳐야 할 어두움의 생활은 무엇인지 토의하여 봅시다. 우리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2) 우리들이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말해 봅시다.

3)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하여 봅시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가정 식구들이, 구역원들이, 우리 교회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많은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5. 결 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 가는 빛의 생활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세상의 죄된 생활은 잠시 동안은 즐거운 것 같지만 달콤한 유혹은 어느덧 없어지고 쓰라린 고통의 날만이 죄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된 생활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하여 열심히 닦아 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 23 과

고넬료 가정의 기도

· 성경본문 : 행 10:1-8

· 중심요절 :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10:4)

· 찬 송 : 84장, 542장

1. 서 론

하나님의 크신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구제의 선한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 나가는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넬료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도전 받기를 바랍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명을 따라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커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부흥의 불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 나갔고 마침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있어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위에 있었지만 고넬료의 가족들은 모두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며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행10:1-2). 그는 습관을 따라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고 읍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도 아주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속된 짐승들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 왔고,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곧 이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여 고넬료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3. 본문 관찰

1) 고넬료가 있던 곳은 어디였으며, 그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1절)

2)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2절)

3) 천사가 고넬료에 대하여 칭찬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4절)

4)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5,6절)

5) 고넬료 가정이 뛰어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받은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4. 삶의 적용

1) 고넬료 가정이 우리들 가정에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2) 고넬료의 경우를 살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3)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4) 우리들의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토의하고 의논된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5. 결 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도와 구제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아 구제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방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고넬료 가정을 생각하면서 고넬료 가정의 구제와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24 과

백부장의 믿음

· 성경본문 : 마 8: 5-13

· 중심요절 :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마 8:8)

· 찬 송 : 528장, 530장

1. 서 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또 다른 백부장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의 분량과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한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도 예수님한테 인정 받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 받는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주님 앞에 칭찬 받았는지 살펴 봅시다.

2. 본문배경 연구

본문의 배경이 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써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마 4:13). 이 곳은 가울라니와 이두래라는 지방과 접한 국경지역에 해당하였으므로 세관도 있었고(막 2:14), 군대 주둔지도 필요하였던 곳입니다 (마 8:5-13 눅7:1-10).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을 떠나 이 곳에서 사셨습니다 (마 4:12-13). 예수님께서서는 이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이곳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였습니다.

3. 본문 관찰 및 토의

1)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6절)

2) 그 백부장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까?(7절)

3) 예수님의 대답에 대하여 그 백부장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8,9절)

4) 백부장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10절)

5)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예언하셨습니까?(11,12절)

6)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13절)

4. 삶의 적용

1)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안타까이 여겨 주님 앞에 나아 온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2) 우리들은 과연 백부장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안타까이 여겨 주님 앞에 찾아 와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이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토의하여 봅시다.

3) 백부장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백부장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는지 의논하여 봅시다.

5. 결 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은 참으로 사랑이 많고, 믿음이 크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랫 사람은 사랑으로 돌보고 위엣 사람은 극진한 존경으로 대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 볼 때 우리들은 아랫 사람은 멸시하고 위엣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 하면서 마음 속에서 우러 나오는 진정한 존경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겉과 속이 같아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깨닫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사랑, 믿음,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 25 과

나사로 가정의 기쁨

· 성경본문 : 요 11:25-44

· 중심요절 :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11:44).

· 찬 송 : 208장, 210장

1. 서 론

우리들 가정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가정의 기쁨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정에 모시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 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생명을 떠난 삶이 되므로 얼마 안있어 시들시들 죽어 버리는 꺾어진 나무가지와 같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주님이 떠나 계실 때에는 불안에 떨었고 나사로에게 죽음까지 찾아 왔지만 주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 오실 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기쁨이 온 집안에 가득 넘쳤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시다.

2. 본문배경 연구

본문의 배경이 된 곳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현재도 약 700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 가는 길에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곳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 남매의 고향입니다. 바로 이 곳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기름 부으심을(막 14:3-9)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위험을 피하여 요단강가에서 말쑼을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을 고쳐 주고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위하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빨리 와 주시기를 간청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 어떠한 것이었는가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마르다는 부활이 언제에만 있다고 믿었습니까?(23절)

2)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요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5, 26절)

()안을 채우시고 돌아 가면서 외워 봅시다.

3)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명과 죽음에 관하여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 주셨습니까?(23, 26, 40절)

4) 예수님께서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44절)

4. 삶의 적용

1) 우리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의심과 걱정이 우리를 얹어맨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각자 뒤돌아 보며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2)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근심과 슬픔을 물리치고 기쁨에 넘친 삶을 살아 가게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며 토의하여 봅시다.

3)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모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것이 생겨질 수 있는 방법을 토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 우리들의 삶에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렇지 못한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5. 결 론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기쁨도 부활과 생명의 보장이 없으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나사로의 가정에서 겪은 일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과 생명의 힘을 온전히 믿고 확신할 때에만 찾아 옵니다. 우리들 가정도 이러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모시고 살아 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경우는 나사로의 가정의 경우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됩시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